

[목회자 모임]
생명의 물(요7:37~39)

2020. 2. 21. 이현래 목사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7:37~39)

오늘은 가정 예배의 날로 정해야겠고, 앞으로도 얼마일지 모르지만 가정 집회를 하도록 해야겠다.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어느 날인가 우리나라에 환란의 때가 오면 가정으로 돌아갈 때가 올지도 모른다.

중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워치만니 계통에서는 적은 무리의 교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 것이 아니고 소그룹으로 모였다고 한다. 공산화가 되어서 기독교를 말살할 때 표면에 나와 있던 교회는 다 없었는데, 집에서 몇몇이 모이는 교회는 없앨 방법이 없어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이것이 연습이 될지 모른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이다. 지난번에 6장에서는 먹는 것, 양식에 대해서 말씀 드렸다.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이 먹었는데, 남은 부스러기가 열 두 광주리가 되었다.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에서 없는 일이다. 그것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 안에서 보면 복음은 나눌수록 많아진다는 것, 줄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돈이나 물질은 나누면 적어지는데, 이것은 퍼주면 퍼줄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다. 너무나 신기하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안에는 이런 양식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시장기를 모르고 그냥 말씀하신 후에 ‘시간이 늦었는데 어떻게 계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고 ‘들판을 보라.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도 하셨다.

오늘은 물에 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면으로 인류의 극한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헤매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든지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되어 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물이 없으면 못 산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를 지날 때 텐트를 치고 산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은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정식으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일종의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축제가 예수님이 볼 때는 공허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7:37,38)고 말씀하셨다. 요한이 말하기를 이 물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붙여 놓았다.

육신은 물질적인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영원한 생명도 이러한 공급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번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도 생명의 공급이 필요하다. 생명은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없으면 못 산다.

신선들은 대추 한 알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고, 공기 한 방울만 먹고 산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을 먹어도 먹어야 된다. 떡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된다.

성경은 이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시가 있다. 에덴동산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에덴을 적시고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다. 그 동산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는 곳이니 물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씨가 있더라도 물이 없으면 발아가 될 수 없다.

그 물이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한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 기쁨의 곳이다. 하나님의 만족에서 흐르는 것이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만족에서부터 나온다. 사람도 그렇다. 내가 만족해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자신이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은혜를 베풀

풀 리가 없다. 육신의 생명도 내가 풍성해야 한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줄 수 있는 것도 자기가 먹을 것을 못 먹으면 젖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먹일 수가 없다.

요즘 아프리카에 대해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이 안 나오니까 아기들이 굶어서 죽는다는 딱한 사정이 있다. 지구에서 한 쪽에서는 배 터져 죽고, 다른 한 쪽에서는 배고파 죽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한 끼만 절약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 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루 분배가 안 되니까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강은 에덴에서 발원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에덴으로부터 강이 발원하는 세계다.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 날을 복 주어 거룩하게 하였다는 그 말은 결국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족할 때 주시는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랬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축복하려는데 별미를 가져오라는 이상한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너에게 힘껏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인데, 그것을 하면서 왜 별미를 가져오라고 했는가? 당시의 복은 영적인 복만 아니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는 복이고,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 받는 복이기 때문에 영육 간에 아울러서 주는 전체적인 축복이다. 그때 별미를 가져오라, 내가 먹고 네게 축복을 하겠다는 이삭의 그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분이 만족하실 때, 사람에게 축복하신다. 그분이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축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를 만족케 하기 위함이다.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모양이다. 전염병이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갈등을 느끼는 것 같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는가? 사람은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가 있다. 가만히 있어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 주시는 법이다. 나는 일생동안 그렇게 경험해 왔다. 나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내가 생각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신다고 생각한다. 꼭 사정을 하고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요즘 일은 아니고 좀 오래 된 일이다. LA에 수정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다. 전에 순회할 때 가 본적이 있었다. 그 예배당을 보고 나니까 다른 곳은 예배당 같지 않았다.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나도 파이프를 지으면 돈이 얼마 들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조그마하게라도 저렇게 짓고 싶다고 생각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돌아와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했다. 그래서 잠깐 꿈을 꾸다가 말았다. 아주 아름답다. 이런 곳도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부도가 나서 캐톨릭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때 가보니까 교회 이름을 묘하게 지어 놓았다. 크리스탈 캐러달(Crystal Cathedral이라고 하는데, 캐러달의 뜻이 성당이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그냥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하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그대로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 지어놓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로버트 솔러 당대에 부도가 나게 되었다. 물론 은퇴한 후이지만 아들에게 맡겨도 안 되고, 딸에게 맡겨도 안 되고, 결국 팔려가고 말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의식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생각이다.

사람의 평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에덴에서 나오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와야 변화된다. 건물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또 의식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도 않는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물이 많아져서 발에 덮이고, 무릎까지 올라오고,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목까지 올라왔다. 더 있을 수 없을 만큼 물이 많아져서 큰 강이 되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를 살리더라는 말이 있다.

바다가 얼마나 큰 곳인가? 성경에서 바다는 사망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21:1)는 말이 있다. 죽음을 의미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바다가 사용된다. 땅이 바다에 묻혀 있었다고 볼 때, 바다는 아주 부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온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많았으면 바다를 살리겠는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말하면 로버트 슐러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기술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런 책도 썼다. 수정교회를 말할 때, 긍정적인 힘으로 그 교회를 세웠다고 말한다고 한다. 긍정적인 신앙생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넘어가게 되고 말았다. 바다를 살리지 못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야 강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성전 문지방에서 그것이 나와야 바다를 살린다. 세상을 살릴 때는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야 세상이 정화되어 갈 수 있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좋은 돈이 나쁜 돈을 물리치게 된다는 말이다. 생수가 흐르면 결국 물이 맑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마당에 있는 연못이 원래는 샘이 있는 자리였다. 그래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질퍽질퍽했다. 그래서 거기를 연못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뒷집에서 나쁜 물이 들어온다. 비만 오면 물이 시커멓게 된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뒷집에서 원천인 하수구를 막든지 아니면 새로운 물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썩어 버리고 만다. 뒷집에 하수구를 고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새 물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아니겠는가? 교회가 세상 비판에 앞장서서 소리를 지른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는가? 호치민(옛날 사이공)이 멸망할 때 교회의 목사, 신부, 교수와 같은 지식인들이 망하는 날까지 데모를 했다. 그런데 티우는 망명해서 도망을 가 버리고 없고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폴포트 정권이 들어와서 그들은 전부 잔치감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도망친 사람들은 보트피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우리도 그것이 남

의 일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교회에서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야 한다. 그래서 대립이 되고, 싸움이 되는 이런 속에서 싸움을 부추기고 어느 편이 정의라고 해서 그 편을 편들어서는 안 되고, 두 편 다 생수를 마시도록 교회는 생수를 공급해야 된다. 화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가서 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편을 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살린다. 물이 나와야 바다가 살아나지 좋은 물이 안 들어오는데 바다가 살아나겠는가? 어차피 아담이 지배하는 세계는 바벨탑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실정이다. 선거철이 돌아오니 난리다. 페이스북에서도 극한적인 발언을 하고 욕을 하고 너무나 살벌하다. 이럴 때 전쟁이라도 나면 큰일 날 것 같다. 6.25전쟁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살벌하다.

이럴 때 더욱 교회에서는 더욱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야 한다. 어느 편을 들어서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싸울 때, 이편을 들거나 저편을 들면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양쪽 다 먹을 것을 주면 해결되고 만다. 개들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싸운다. 개뼈다귀 또 주면 싸우지 않는다. 더 주면 싸우지 않는다. 아이들도 한 가지 가지고 싸우면 하나 더 주면 된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게 된다.

세상은 부족하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 부족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 거기서 무엇을 해서 안정이 되겠는가? 어느 편을 들어서 안정이 되겠는가? 교회는 중립이라기보다 우리의 본성상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가야 된다. 교회가 중립을 지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중립이 아니고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일이다.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라는 말은 어린양의 통치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형태로 본다면 어린양의 통치이다.

계시록 5장에서 인봉한 책이 나올 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계5:4~5)고 했다. 유대 지파의 사자가 갓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갓 죽임을 당한 어린양에 의해서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 경륜의 비밀이다. 아무나 연구하면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가 알겠는가? 어린양 밖에는 알 수가 없다. 연구해서 알 수가 없다. 2000년 동안 얼마나 그 비밀을 캔다고 사람들이 노력했는가? 캔다고 한 것마다 다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가 있는 곳에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계22:2) 그런 후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은 에덴동산에서는 에덴으로부터 생명수가 발원되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일련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양만 다르지 한 이치이다. 생명의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물,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것은 모두 같은 물이다.

최종적으로는 어린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그 말이다. 에덴은 어린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성전도 어린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여기서 물이 나오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어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관이고 종말론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덩이가 떨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된다는 이런 유치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종말이 아니다. 어린양의 통치가 있어서 다시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가 오게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외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7:37,38) 에덴동산, 성전 문지방,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겠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에게서 나오는 물이다.

예수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물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요한은 이 물은

그가 영광을 받기 전에는 없었다고 했다.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주실 성령이라고 말했다.(요7:39참)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바로 이 물이 흐른다. 오늘 우리에게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모든 사람이 버려버린 그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면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말이다. 너무나 명백하다.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남용되고 왜곡되고 말았다.

기독교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온갖 일을 다 했다. 국교가 되면 그분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교가 됨으로 예수가 영광을 받았는가? 교회가 커지면 영광을 받았는가? 어떤 예수가 영광을 받았는가? 자기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예수가 영광을 받은 것이다. 자기들이 버린 예수는 그대로 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버렸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버리는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버려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 취했지 예수는 버렸다. 그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가 영광을 받으시려면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그 자리가 영광을 받아야 참으로 영광을 받는 자리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면 그 사람 전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좋은 점만 내놓고 인생을 자랑하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인생의 가장 연약한 것이 살아난다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영광을 받는다면, 세상은 부족함이 없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도 적용이 안 되고 버려져 버렸다. 이제 우리가 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강조하는가? 바로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예수가 지금 영광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나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 버림받은 예수를 내가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 확신이 된다. 내가 무슨 업적이 있어서 사랑하시겠는가? 그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나는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분을 기쁘게 하면 저절로 물이 나오게 된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저절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모두들 헛되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좋아하실 수가 없다. 버려져 있는 데 어떻게 좋아하겠는가? 왜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11:28)고 했겠는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겠다는 말인가?

우리가 예수를 받아먹으면, 바로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짐이 없어진다. 더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왜 모두 힘이 드는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주신 것이 안 보인다.

십자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 보인다. 그것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안식이 오겠는가?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내 자신이다.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내 자신이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다.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데 내가 힘이 안 들겠는가?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누구에게 너는 내가 받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네게 있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면 귀중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즐겨워해야 된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 우리 인생을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놓았으면 거기서 그것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다. 흠이 만약에 주인이 와서 밭을 갈았는데, 가을에 옥수수 밭이 풍성하게 되어서 많은 옥수수가 열렸다면 흠은 정말 영광스럽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옥수수를 다 따가지고 가고 나면 앙상하게 도로 흠만 남는다.

그러면 흠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주인에게 드렸구나. 나 같은 흠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복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기껏 애써서 해놓았더니 다 가져가 버리는구나.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면 불행이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여자가 아기를 낳느라고 10달 동안 수고하기도 했지만 낳을 때도 죽을힘을 다해서 낳는다. 그런데 낳아놓으니까 여자 성은 쓰지 않고 남자 성을 쓴다.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누가 아기를 낳겠는가? 나는 김씨인데 아기는 왜 이씨냐? 이러면 세상에 씨가 남겠는가? 자기에게 주신 것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 데,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그를 본받자고 하니까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본받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다. 아무나 아버지 사랑을 하겠는가? 아무나 어머니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픈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지만 내가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슬픈 일이었다. 내게 어머니가 되실 분은 없다. 누구도 내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 더 잘 해 주실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좋은 분도 많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

내게 주어진 이것은 누구도 대치할 수가 없다. 이것을 버리면 내가 무엇을 갖겠는가? 이것을 버리면 나는 가질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예수께서는 왜 자기에게 오면 목마름이 없어질 것이고, 자기에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그런 자리에 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을 영화롭게 한다면, 나는 부족함이 아무 것도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5) 어떻게 이런 말을 사람이 하겠는가? 놀라운 말이지 않은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

요한은 이 물이 그가 영광을 받고 주신 성령이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7:39) 고 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령, 성령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되면 언제든지,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있고 선물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다. 신비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당연한 이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7:37,38) 옛날에 이것을 경험해 보려고 기도원을 찾아다녔

다.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가? 나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허해서 배에서 출렁출렁 물소리가 나는데,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해봤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다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에게만 주시지 않았다.

왜 그런가?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알게 되었다.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기 전에는 나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분이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고생한 백성들이다. 물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에게 절실하게 와 닿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먹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한 번 치면 될 것을 두 번을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겠는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으면 그랬겠는가? 백성들의 원망도 무시할 수가 없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얼른 보면 백성들이 너무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어찌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벌을 내리셨다. 너는 왜 반석을 두 번 쳤느냐는 것이다.

반석을 두 번 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뜻이다. 모세가 화가 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언제 화를 냈느냐? 나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너는 왜 두 번을 쳤느냐? 이 이야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팡이로 때렸는데, 반석이 어떻게 깨지겠는가? 그런데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났다고 한다. 이것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해석했다. 이스라엘은 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것이다. 그를 따르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것이 기가 막힌 해석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계속 이 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게서 깨져서 물이 나오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물이 나오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10:4) 정말 기가 막힌 말이다.

오늘도 깨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 그 화려하고 놀라운 것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래도 못 내려온 것은 쪼개진 것이다.

바위가 쪼개진 것과 같은 것이다. 거기서 물이 나왔다. 거기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문이 열렸다. 하나님 마음이 열렸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이 열렸다. 생수가 흘러나온 것이다.

모든 생물들은 물을 먹어야 산다. 어떤 생물도 물 없이 살 수는 없다. 예수는 생명주는 영이라고 한다. 생명주는 영이다. 물은 생명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15:45)라는 말씀이 있다.

예수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는데, 어떻게 생명주는 영이 되셨는가?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가? 어떻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가?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온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 6:63)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6:55)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자기가 누구기에 자기 살을 나눠주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요6:67)하고 물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6:68)라고 대답했다.

내가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너희도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6:63)라고 말씀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영이요 생명이 되는가? 그것은 그가 깨진 반석이 되기 때문이다. 공자님 말씀보다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 말씀보다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유교에는 너무 좋은 말이 많다. 왕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말을 했고, 신하에게는 신하가 될 수 있는 말을 했고, 너무 좋은 말이 많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왕들을 향해 예언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서삼경에 보면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쉽게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대학은 왕도이다. 왕이 되는 사람이 봐야 하는 책이다. 격물치지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사물의 이치를 보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다. 얼마나 당연한 말인가? 사물의 이치를 알면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알고 지혜를 얻으면 뜻을 정하게 되고, 백성을 새롭게 한다. 백성을 살린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임금은 백성을 살릴 수 없다는 말이다. 얼마나 맞

는 말인가.

주님은 생명주는 영이시다. 그분 자신이 생명주는 영이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분은 사람을 살린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천지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를 읽으면 절절히 그렇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 그러면 말씀은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되는가?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탱하고 영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아주 묘한 매치가 된다.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이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3)고 했다.

이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고, 말씀으로 지탱하고 있고, 말씀으로 영위되고 있다. 인간은 특별히 말씀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다른 동물들은 정해진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사람은 정해진 법칙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나보다 큰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것이다.

공산주의가 왜 생기는가? 말씀 때문에 생긴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세계 노동자여 일어나라. 잃을 것은 죽쇄밖에 잃을 것이 없다. 이 한마디가 지구를 흔들었던 것이다. 그 대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장관이 되었는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 노동자이다. 장관이 되고, 거기서 무엇을 해먹은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노동자 농민이 아니었다. 혁명을 할 때는 노동자 농민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구성되고 난 후에는 노동자 농민은 도로 노동자 농민이다. 사람만 수없이 죽는 것이다. 스탈린 치하에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아무도 스탈린이 자기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놀라운 사람이다.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이 간단한 한 마디가 세상을 흔들었던 것이다. 말 때문이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맞다. 죽도록 일해 놓으니 가져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분노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다.

세상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 독일의 85%가 기독교 인구인데 히틀러 말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나치즘에 동조했다. 일본의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것이다. 대동아는 한 집안이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살자는 것인데, 전쟁을 일으켰다가 미국에게 호되게 혼이 났다. 말이 세상을 지배한다.

어떤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말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내 잘나서 사는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다. 속는다. 백성은 그냥 속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속는 것이다. 백성의 민도가 올라가야 민주주의는 올라간다. 민도가 낮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가난할 때는 고무신만 주어도 표를 찍어주었는데, 지금은 고무신 준다고 안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

말의 지배력은 엄청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너무 좋은 물이다. 석간수가 바위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다. 내가 어렸을 때 암자에 있었다. 높은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산꼭대기에서 무슨 물이 난다. 바위틈에 물이 나오는데 일 년 내내 똑같다. 너무 좋은 물이다.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한다. 나쁜 물을 먹고 건강할 수 없다.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좋은 물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건전하게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건전하게 된다.

예수는 생명주는 영이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위대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운명을 살려낸 사람이다. 내가 왜 아담 안에 있었던가? 이 운명을 나도 멸시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무엇을 가져도 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영화롭게 살려내신 분이다. 영화롭게 살려내신 이 생명 안에 있게 된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진다.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렇게 부족함이 많던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감사와 찬양만 나오게 된다. 참 신기한 일이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지탱되고, 말씀으로 영위가 된다. 좋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특별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귀중한 자리에 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어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가 교육을 받아서 긍정적으로만 하라고 한다고 되겠는가? 개는 개다. 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소가 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족한 물을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내 몸이 건강해야 내가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그냥 말만 할 수는 없다.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런데 별거 아닌 말에 사람이 살아난다. 왜냐하면 살리는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다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면 그래도 시간을 좀 당기지 않겠는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당길 수 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계 22:20) 우리의 소원은 그것이다. 주님이 더 많이 오시고 더 많이 오시고, 더 가까이 오시고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통해서 바닷물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가족끼리 좋은 순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